

'합한' 축제로 영등상권 '들썩'

익산시, EDM 페스티벌 · 얼맥축제 개최... 시민 대거 참여로 상권 제2의 부흥 '시동'

익산시가 남녀노소 열정 가득 즐기는 '합한' 거리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영등상권 제2의 부흥에 시동을 걸었다.

지역 주민들이 거리에서 함께 즐기는 '합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해 지역의 대표 변화기인 영등상권에 인파가 몰리는 MZ감성 상권활성화 전략을 기획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최한 EDM 페스티벌과 8~9일 열린 2023 다다영등 얼맥축제에 1만7,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북새통을 이뤘다.

우선 지난 2일 영등상권 백제단원에서 진행된 EDM페스티벌은 '쇼 미더머니' 우승자 래퍼 행주와 DJ 비비, 크루너 마르코, 이하늘 등 실력 있는 DJ들의 디제잉으로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상권 이용객 및 인근 주민 등 남녀노소 2천여 명이 함께 EDM 음악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들며 영등상권을 뜨거운 열기로 물들였다.



공연 이후 뜨거운 축제 열기가 이어져 점포마다 손님이 북비면서 EDM 페스티벌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는 평가다.

EDM페스티벌이 거리축제로 '합'하다는 입소문을 타자 8일과 9일 이틀간 열린 '다다영등 얼맥 축제'는 1만5천여 명이 몰려왔다.

영등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도로와 롯데마트 뒤편 공영주차장에서 진행된 얼맥 축제는 하이틴진로의 시원한 맥주 협업과 영등상권의 가성비 높은 먹거리를 거리에서 즐기는 '합한' 축제로 단숨에 급부상했다. 영등상권 일대에 일일 7천500여명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등 큰 활기를 찾았다.

특히 인기 가수 흥진영의 특별무대와 모창가수인 싸이버거, EDM 댄스파티 등 신나는 무대와 거리 곳곳에서 장기 자랑, 영수증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우체통거리에서 '제6회 손편지축제'를 개최했다.

손편지 축제, 레트로 감성 통했다

우정사업본부 공식 SNS채널에 우체통거리 홍보... 외부 관광객 줄이어

디지털 시대의 역설,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가 관광객들의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면서 도시재생 거리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군산우체통거리에서 제6회 손편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손 편지 쓰기 체험과 함께 매직바블 & 풍선아트쇼, 어린이 합창단 공연, 문화·예술인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으며 지역 상인들의 재능기부로 캐리커처 그리기, 탐블러 에코백, 올리브나무 화분 만들기 등 10여개의 상설 무료체험관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2023년도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대표 축제로 선정된 이번 축제는 도비 3천만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해 행사를 확대했으며 선선한 가을날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1970년대 자전거 탄 우체부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에게 꽃송이 등을 전달하는 이색 이벤트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손 편지 축제는 골목축제

의 한계를 넘어서 외부 관광객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시와 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회장: 배하서) 주민들의 홍보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는 먼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해 '우체국 공식 SNS채널'에 군산우체통거리 손 편지 축제 홍보물을 게시해 전국적인 관심을 높였고, 지역 주민들은 월 7만명이 방문하는 롯데몰 군산점에 축제 홍보관을 조성해 15일간 응원염서 쓰기 캠페인을 개최하기도 했다.

시는 이러한 우체통거리 성공 노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군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고, 수방시제를 기록화하기 위해 금번 우체통거리 손 편지 축제의 기획과정부터 행사 종료까지의 모습들에 대해서 영상 콘텐츠 제작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주민공동체의 중요성을 확인,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일러는 계기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내년 시정 운영, 허리띠 졸라매자"

"교부세 감소로 세출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예산 절감 대비해야"

정헌율 익산시장의 내년 지방교부세에 대한 큰 폭 삭감이 예상되는 만큼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잘 검토해달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정 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경기 불황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올해 세출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 부서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지,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지방교부세 정부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8조 5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며 "예산 요구 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치밀하게 대응하고, 특히 보조금 사업을 중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년간 시정을 운영하며 걱정 없이 예산을 잘 활용했었는데 내년은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민간의 준비를 해나가자"고 독려했다.

이날 정 시장은 지역 곳곳에서 치러지는 가을 축제와 행사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서동 축제와 NS푸드페스티벌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청년지원정책 △열린관광 상품 개발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첨단악취저감 위해 불법 가축분뇨 '전자 감시' 시스템 가동

익산시가 가축분뇨 불법행위 전자감시 시스템 가동으로 첨단 악취저감 행정을 펼친다.

가축분뇨는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익산시 전체 악취 민원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전자감시 시스템 가동으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지난 8일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홍보관에서 가축분뇨의 관리업무

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역 50여 개소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전자감시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 전자감시관리시스템 관리 및 인계서 작성 등 시스템 사용법 설명으로 전자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살포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해 가축분뇨 불법행위를 손쉽게 적발할 수 있으며 시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올해 15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했다.

전자시스템 미입력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액비 과다 살포 및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고위공직자, 청렴 실천 서약 · 교육 수강

군산시는 11일 오전 김갑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청렴 실천 서약식'에 이어 '청렴 교육'을 수강했다고 밝혔다.

청렴 실천 서약식은 고위직이 나서 청렴 실천 의지를 재강조하고 공표함으로써 공직사회 청렴 문화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파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이번 서약에서 군산시 고위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 △직무수행 과정에서 절대로 금품·향응·편의를 받지 않고 부정청탁을 하지도 들어주지도 않을 것, △공익을 우선해 연구주의를 버리고 공정한 일 처리를 할 것, △외부의 부당한 직무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여 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을 하지 않으며 경청과 소통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익산시는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방사는 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장기 학생들이 먹는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산물 공급 유통업체 방문을 통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추진한다.

시는 학교급식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월 공급업체별로 주요 학교급식 공급 수입 수산물에 대해 시료를 수거하여 방사능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내년에는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방사는 검사장비를 구입하여 모든 수산물에 대한 직접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26개 학교에 24종류의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베트남, 러시아, 중국산 수산물이 주를 이루며 일본산 수산물은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어린이 · 임산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군산시가 오는 20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2010. 1. 1. ~ 2023. 8. 31.출생자),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생애 첫 접종을 하거나 접종력을 모르는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2회 접종 대상자)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9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1회 접종 대상자) 및 임신부는 오는 10월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보건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관리번호 발급대상자(주민등록번호 없는 내국인,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체류자)만 실시하며, 임신부는 주소 상관없이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등)를 제시하면 접종이 가능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